

산학리뷰

2004년 4월 / 제15권 제4호 (통권 156호)



2004. **4**

CONTENTS

- 2 • 산학칼럼 / 산학협동 요람으로의 변신을 꿈꾸며... 4 • 이달의 쟁점 / 대구시의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및 전망
- 7 • 경영 · 기술정보 / 웰빙(well-being) 트렌드-문화에서 상업(마케팅)으로 11 • 대덕단상 / 복을 주는 현공풍수
- 15 • 제167차 월례세미나 / U.S.-Korea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22 • 짧은 상식, 긴 여운 I / 관절염 치료-생활 속에서 찾는다
- 24 • 짧은 상식, 긴 여운 II / 바다 속 노다지를 캔다-하이드레이트(Hydrate) 26 • 연구원 소식 27 • 회원동정
- 30 • 신착도서목록 31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산학협동 요람으로의 변신을 꿈꾸며...

최만기 | 본원 원장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장

산학협동을 위하여 산(産)과 학(學)이 머리를 맞대고 본 연구원의 문을 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 전임 이사장님들과 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현 사무국의 열정 및 경향 각지 각계 각층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최소한의 뿌리는 내린 듯 합니다.

산과 학의 두텁던 벽은 상당히 얽어 졌습니다. 처음엔 마주하여 30분을 얘기하기 힘들었으나, 이제 3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그칠 줄 모릅니다. 보수적이며 폐쇄적이기까지 하다고 평가받는 척박한 풍토도 168번의 월례세미나를 거치면서 약간은 변화된 듯 합니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던 연구기관이 지역에서 민간이 자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겠다는 용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우리(URI)의 길은 아직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늘 추구하였으나 미진한 것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는 시대에 걸맞는 산학협동 정보의 제공입니다. 이제까지 「산학리뷰」지가 통권 155호를 거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에 바탕한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은 종종 세계와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Peter Drucker가 「Next Society」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쇄술이 그러하였습니다. 1455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완성된 후 60년이 흐른 뒤 마틴 루터의 독일어판 성경이 수천부씩 팔려나가면서 개신교를 낳게 되고, 그 후 150년간 유럽은 종교개혁, 종교전쟁, 종교폭동 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또한 1970년 후반 이란의 팔레비왕은 정적 호메이니를 파리로 추방하고 이란 내의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파리에 있는 호메이니가 이란 민중과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에 동조하는 이란의 성직자들은 당시 이란 집권층이 의심하지 않던 기술인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하였습니다. 매주 파리에서 호메이니의 선동적인 역설을 값싼 녹음기로 녹음하여 이란으로 몰래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란의 성직자들은 그 테이프를 200달러짜리 복사기로 무한정 복사해 이란 민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호메이니의 설교는 이란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결국 이는 이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따라서 우리(URI)의 정보교환도 이제는 off-line과 디지털기술에 바탕한 on-line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어 off-line으로 제공되던 「산학리뷰」지의 변신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 그간 미준하였던 부분은 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연구기능의 강화입니다. 몇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학술지의 성격, 내용, 편집방향 및 편집위원 등에 관한 논의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은 물론 학계나 실무계에 종사하는 어떤 분들도 산학관련 협동과 관련된 주제라면 투고하고 게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학술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술이 이같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2002년 월드컵, 대통령선거,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및 17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URI)의 정보교환도 이제는 off-line과 디지털기술에 바탕한 on-line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어 off-line으로 제공되던 「산학리뷰」지의 변신이 요구됩니다. 그리하여 「산학리뷰」 편집진에서는 이를 Webzine화하고 수시로 on-line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바꾸고 올 후반기부터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산학관련 협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인상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착실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간 미준하였던 부분은 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연구기능의 강화입니다. 연구용역의 결과를 연구총서 형태로 발간하거나 매칭펀드 제공을 통해 산학협동 과제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총회의 결정대로 산학협동 전문학술지를 발간하기 위해 김지수 부원장과 권업 부원장을 중심으로 또하나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몇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학술지의 성격, 내용, 편집방향 및 편집위원 등에 관한 논의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은 물론 학계나 실무계에 종사하는

어떤 분들도 산학관련 협동과 관련된 주제라면 투고하고 게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학술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흡하였던 실질적인 산학협동도 이의 출발을 통하여 많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URI)는 체계적인 산학협동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신은 우리(URI) 사무국이나 임원에 의해서만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 변신에도 회원 모두가 한결같이 협조하고 성원함에 나아가 주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대구시의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및 전망

배영철 | 대구시 투자통상과장

침체 일로에 빠져있던 아일랜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개인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제일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많은 주정부가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알라바마주에서는 현대자동차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주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이웃 중국 또한 수십년 동안의 고속성장을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속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 공무원이 나서서, 경쟁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남도 같은 경우 투자유치가 도정의 제일 정책순위로 오랫동안 채택되어, 16개 지자체 중의 모범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대구시의 상황은 어떠한가? 1971년도 한국리드에 일본 기업 다까야마리드사가 9만불을 투자한 이래, 2003년말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총 134개이며, 투자금액 합계는 4억12백만불로서, 전국대비 약 0.6%로서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이나, 지역 총생산(GRDP)은 3.5%이고, 수출은 1.4%, 1인당 GRDP는 1991년부터 줄곧 최하위 등의 다른 경제지표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아주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

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왜 투자유치 실적이 이렇게도 저조한가? 첫째, 모든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수도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항만시설에의 접근성도 낮은 등의 입지여건이 불리하다. 둘째,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이 외국인투자 대상 사업으로서 매력도 부족하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고도 기술 산업이 미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셋째,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신규로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이 너무 비싸다. 넷째, 국제항공노선이 부족하다. 다섯째, 외국인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 환경이 미흡하다. 여섯째, 지금까지 시가 추진해온 투자유치 대상 사업(검단동 물류단지사업, 낙동강 강변도로사업 등)이 수익성이 낮은 등, 여러 사유를 거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구시는 계속해서 외국인투자유치의 불모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상기한 문제점들만 생각하면, 대구시는 영원토록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이 보여 걱정스럽다. 허나, 대구시는 그 나름대로의 매력도 갖고 있다. 첫째, 구미 전자산업단지, 포항 철강산업단지, 창원 기계산업단지, 울산 자동차 및 석유화학산업단지 즉

대구시의 경제구조가 소비와 유통 중심에서 생산(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 중심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경남 및 경북처럼 대규모 투자유치를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자체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투자유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유치 전략은 1)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2)투자유치 기반강화, 3)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서는 봉무동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 컨벤션센터 호텔 투자유치 등 기존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조기 성사시키고, 패션어패럴 벨리 등 신규프로젝트 개발을 강화하며, 지역의 투자유치희망기업도 아울러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의 4대 산업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대구시 생활권내에 14개 대학과 13개 전문대학이 있어서, 이로부터 연간 44,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기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4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3개가 추가 건설중이며, 2개의 철도 및 1개의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으며, 1개의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등 내륙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구 경북 일원에 약 5백만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자체의 거대소비시장을 갖고 있다.

대구시의 경제구조가 소비와 유통 중심에서 생산(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 중심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경남 및 경북처럼 대규모 투자유치를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자체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투자유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유치 전략은 1)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2)투자유치 기반강화, 3)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구시의 외국인투자유치 총액 중에서 증액투자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체와 유사하며, 기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본국에 있는 다른 기업이 한국 진출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이미 진출해있는 자국기업의 경영자가 갖고 있는 평가다.

2003년 10월 지역의 최대 외국인투자기업인 대구택이

공장증설로 인하여 추가로 전력공급이 필요하였다. 한국 전력의 입장은 자체내규에 의거 10,0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전용선로를 별도 설치해야하며 공사비는 15억원에서 57억원 정도라고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전기선로 설치비는 도로·상하수도와 마찬가지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고, 그 사용료만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산업자원부, 한국전력,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상의하여, 한전의 내규를 개정하여, 추가 선로 설치비를 최소화 하고 그 비용도 대구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보았다. 동 사례에서 보인 대구시정부의 자세는 분명히 대구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스라엘 본사에서 파견 나온 현지법인 사장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기존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구시는 50만불 이상 투자한 34개의 기업 중에서 호텔 및 기타 서비스업체를 제외한 31개의 기업에 대하여 외투자기업담당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산업국의 사무관을 1개 혹은 2개 기업체의 담당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들이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신속히 경영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두 번째의 투자유치 기반강화를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네 가지를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현재 외국인투자유치 조직을 1개 팀(사무관 1명, 직원 5명)을 2개 팀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기획단 혹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투자유치 담당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




는 2003년 9월 기업유치촉진조례 개정을 통하여, 투자유치 관련 민간컨설팅 기관 활용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투자가 완료되고 난 뒤, 사전 타당성 조사 비용의 1/2(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및 일반 개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성과급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와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성공 보수로 투자금액의 1%(한도 없음)를 지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구지공단, 세천공단, 봉무단지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특히 구지공단 82만평 중 10만평을 외국인전용단지로 조성하여, 고도기술사업에 1백만불(약 12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는 50년 혹은 100년간 공장용지를 무상 임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봉무동 어패럴밸리 단지에 2007년 3월 개교 목표로 외국인학교를 개교준비에 있

다. 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며, 2004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4년 하반기에 학교설립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서는 봉무동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 컨벤션센터 호텔 투자유치 등 기존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조기 성사시키고, 패션어패럴 밸리 등 신규프로젝트 개발을 강화하며, 지역의 투자유치희망기업도 아울러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유치는 담당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처럼 모든 공무원이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으뜸가는 수단이라는 믿음 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역사회 시민, 기업인, 언론 등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외국기업 유치에 하나의 목소리로 매진할 때만이 각종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대구시가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웰빙(well-being) 트렌드

-문화에서 상업(마케팅)으로



김용준 | 영남이공대학 인터넷비즈니스과 교수

최근 웰빙(well-being)이 뜨고 있다.

사전적(辭典的)인 의미로는 행복이나, 안녕, 복지 등을 뜻하지만 파생적 의미로는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뜻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웰빙족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삶보다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웰빙은 단순히 경제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뜻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전한 문화적인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웰빙의 기세는 마케팅의 중심이 되어 있는 웰빙의류,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삶의 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는 웰빙제조, 건강과 직결되는 친환경 소재의 건축재료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며 세분화되고 있는 웰빙주택, 웰빙수면법 등 의식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가전제품, 의류, 휴대전화, 정수기, 식품류에 이르기까지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웰빙의 조건이 되고 있다. 이제 웰빙의 열풍은 단순한 하나의 신드롬을 넘어 현대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셈이다. 삶의 질과 연관된 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업들은 웰빙 마케팅에 나서고 있으며 웰빙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실질가치(real value)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요란한 광고문구나 막대한 마케팅 노력보다는 소비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웰빙 요구의 키워드는 '풍요'와 '실속'으로 압축될 수 있다. 사실 건전한 소비태도나 지역봉사, 정신적 평안 등의 개념보다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서 수익가능성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 고령 인구 증가, 환경의 위협 등으로 주거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웰빙 바람은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이 지나치게 상업적·물질적으로 흐

르고 있음을 경계하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별 개선점 없는 제품에도 '웰빙'을 붙이는데 급급하고 소비자들은 웰빙마케팅에 너무 쉽게 좌우되면서 웰빙의 근본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소주회사에서 알코올 도수를 22도에서 1도 낮춘 21도 소주를 새로 내놓으며 이를 '웰빙소주'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상업주의적 웰빙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웰빙은 말 그대로 정신적인 가치가 우선되는 행복감인데 기업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웰빙족이라면 명품족과 다름없이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강타하는 웰빙열풍

어찌되었던 그칠줄 모르는 웰빙열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한다. 웰빙식단, 웰빙가전, 웰빙의류, 웰빙주택, 실버웰빙이라는 꼬리표를 단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어 웰빙이 약방의 감초격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를 악용해 건강과는 무관한 상품들이 웰빙 마케팅으로 포장되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불어 웰빙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소비계층의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웰빙문화에 대해 경계하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각 업종별로 뜨고 있는 웰빙 바람을 사례로 조사해 보았다.

가장 대표격으로 뜨고 있는 외식업계의 현황을 보자. 특히 봄철을 맞아 봄기운이 물신 풍기는 계절메뉴부터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건강식품까지 다채로운 요리들이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기름에 튀기지 않는 조리법의 봄나물 샐러드, 비타민과 갈슘이 풍부한 생과일 음료들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돈육의 경우에는 녹차나 유채 및 한방재료를 먹인 돼지고기는 물론 최근에는 항암효과가 뛰어난 마늘을 사료로 먹인 '마늘포크'까지 등장하는 등 웰빙 트렌드는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장흥순 식품은 다용도 복합조미료 '한우昧'를 개발해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중견식품 업체이다. 충남지역의 특산 쇠고기 20%와 국산야채를 적절하게 혼합, 깊은 맛을 내고 다른 조미료 보다 적은 양을 넣어도 탁월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제품은 지역 주부들의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면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메이저 업체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웰빙 바람에 퇴출식품이 부활된 사례도 있다. 식품 시장이 무르익거나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출시되는 바람에 된서리를 맞았지만, 건강 트렌드를 타고 다시 한 번 시장공략에 나선 경우이다. 풀무원이 검정콩두부를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 2002년 4월. 건강에 좋다는 점을 내세워 신제품으로 내놓았으나, 당시에는 고객들의 인지도가 낮아 판매가 좋지 않아 얼마 안 있어 출고가 중지되었다. 하지만 이후 유업계에서 시작된 '검은콩' 열풍을 타고 지난해 제품을 재출시, 11월에는 내부 매출가격 기준으로 1,300만원, 12월에는 3,600만원이 팔린데 이어 올해 들어

서는 그 두 배 이상의 매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건강보조식품 클로렐라의 인기를 업고 지난 2001년 출시된 한국야쿠르트의 라면제품 '순면 크로렐라'의 경우는 '삼수' 끝에 최근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83년 라면사업 시작과 함께 내 놓았으나 실패하고, 90년의 재출시에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클로렐라 성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덕분에 연간매출 25억원을 올리며 가까스로 틈새를 파고 들었다.

이외에도 먹으면서 살빼는 웰빙 다이어트로 인기를 얻고 있는 (주)인티머스의 '메츠 발란스 알파' / 17가지의 곡물의 맛·영양이 듬뿍 담긴 신도불이 식품으로 최고의 건강대용식인 청록식품의 미숫가루 / 굴·꼬막·대합 등 바다에서 나는 조개껍질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 골다공증 예방에 면역기능도 강화시키는 (주)덕천식품 / 국내 최초 건강 테마 단지를 조성하여 건강과 레저활동을 한 단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알프스건설(주) / 문화체험과 MT최적의 명소로 꾸민 남한강변의 토마토 벨리 / 99만원으로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현대 웨미리 콘도 등은 2004년 서울 경제신문의 「경영혁신 성장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다.

경기부진으로 금융권 전세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금융권도 웰빙 마케팅으로 불황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마일리지, 마사지 카드 등 신상품을 웰빙 관련 업체와 제휴하여 계속 출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웰빙 붐을 타고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웰빙형 안전제품'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상품과 갖가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접목 제품이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제조업체인 흥진테크에서 최근 출시한 폭발 방지용 가스레인지 '사파이어' / 가스안전장치 전문업체인 지티가 내놓은 '가스키퍼' / 세계 최초로 규소를 이용해 시린 이와 약해진 이 등 잇몸질환을 예방해주는 기능성 치약 '시-라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건강을 지키는 제품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업도 많다. 싼값에 렌탈 할 수 있는 웅진코웨이 개발의 공기청정기와 비데 / 식품포장재·유아교재 등을 무공해 종이로 공급하는 무림제지 / 층간 소음을 줄인 단열재를 개발한 원진건재 / 요구르트·청국장 제조기를 만들어 최고 인기 제품으로 부상한 엔유씨전자 / 광촉매 코팅한 벽돌로 오염물질을 정화한 공간세라믹 / 주방가구를 폐기할 때도 유해가스가 안나오게 제작한 에넥스 /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냄새도 없는 제품을 개발한 삼화페인트 / 게임·영화를 즐기는 러닝머신을 개발한 모투스 / 고효율 공기정화 필터로 초미세 먼지까지 없애는 이롭라이프 / 에어컨 기능이 달린 마라톤화를 개발한 프로스펙스 / 무게 절반을 줄인 초경량 등산화를 개발한 트랙스타 /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하여 세균·곰팡이 서식을 막아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친환경 바닥재 기능성 제품을 선보인 한솔 홈테크 / 합판 마루용 접착제의 독성물을 완전제거한 동화기업 / 원목을 해외에서 직접 키워 친환경 건강합판을 공급하는 이견산업 / 상허수·폐수처리기를 독보적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위생처리장에 설치하는 월드 이노텍(이상 매일경제에서 선정한 기업) 등은

웰빙개념으로 상업화에 성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다.

웰빙 마케팅에 대한 유감

그러나 웰빙 바람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으로 대표되는 웰빙산업에 대한 광풍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최근에는 삼성, LG에서도 속속 공기청정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는 과열된 시장 양상은 심히 우려가 될 정도이다. 과연 이러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들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신선한 물과 공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제품들은 모든 가정에서 필수적인 가전제품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필요한 장소에 주기적으로 적절한 운영관리를 거쳐야 하는 특수한 제품이며 TV와 냉장고, 세탁기처럼 사람에게 항상 편리만 제공해 주는 일반 가전제품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제품인 것이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이 일반가정에 파고든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바이러스 파동으로 대표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확산되어지고 황사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으로써 호흡하는 공기에 대한 불안감, 또한 최근 '새집 증후군' 이라 불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독성에 대한 공포감이 가져온 현상이다. 그러나 일반소비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제품들이 자연의 신선한 물과 공기를 대체하는 현대과학의 산물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이러한 웰빙제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결국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는 소비자 자신들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환경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찾아온 웰빙 산업의 호조는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얼어붙은 불경기 속에서 호황을 맞이한 웰빙산업을 어설픈 상술과 현란한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하지 않았는가. ❖

복을 주는 현공풍수



김기선 | 아이교역 대표,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풍수지리 전공 겸임교수

올해는 탄핵정국이 초래된 갑신년(甲申年)이다.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 개화당이 청에 의존 하려는 수구세력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적인 혁신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갑신정변을 일으킨 해 (1884)로부터 120년만이다. 원래 갑자(甲子)·갑신(甲申)·갑진(甲辰)년에는 천문학적으로 화수 목금토성 등이 만나기 때문에 지구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시기이다. 올해도 3월 27일경 오대행성 이 만났다. 그러므로 경기불황, 천재지변, 정변에 따른 지도자 수난은 예견된 일들이다.

필자는 취미로 오랜 세월 풍수지리를 연구하여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에 풍수지리 석사과정을 3 년전에 개설, 『현공풍수지리』 등의 저서를 통하여 현재 30명이 넘는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중국 당 나라 때 국사 이순풍(李淳風)이 어느 날 신분을 숨기고 『장경(葬經)』의 저자이며 현공풍 수(玄空風水: 20년 마다 왕기를 받는 좌향이 바뀜에 따라 그에 맞는 좌향과 분금을 놓아야 복을 받 는다는 풍수)의 창시자인 곽박(郭璞 276-324)의 후손들을 수소문하여 그 손자를 찾았다. 선영을 지 키고 있던 손자는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신세였다.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한 이순풍은 “천하의 명사 (明師)였던 곽박 선생의 묘가 어디인가?” 라고 물었다. 이순풍은 손자의 안내를 받아 남경 현무호 (玄武湖)에 있는 곽선생의 묘를 점검해보니 천하 대지(大地)였다. 그런데 후손들이 이렇게 가난하 게 산다면 도대체 지리(地理)의 이치가 어디에 있던 말인가? 라고 장탄식을 했다.

이순풍은 비로써 자신이 국사(國師)임을 밝히고 묘를 파보자고 제의했다. 손자의 허락을 얻어 묘 를 파보니 분금(分金: 시신을 묻어둔 좌향의 각도)이 틀려 있었다. 관 위에 한편의 글이 있었는데 거 기에는 후배에게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계찬(啓贊: 장례치른 묘를 파내 유골의 상태를 점검, 바로 잡아 다시 매장하는 의식)시에 분금을 바로 잡아 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이순풍은 곽박 선생이 천하가 혼란하여 다수의 지도자들이 살상당했던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를 예상하고 이 시기에 후손들이 극빈하게 살면서 목숨이나 보존하도록 의도적으로 분금을 틀

현공풍수(玄空風水)란 1운(一運)을 20년으로, 매3운(每三運)을 1원(一元)으로, 입춘일(立春日)을 기점으로 20년간의 주기(週期)로 지운(地運)이 바뀌며 방위(方位)에 따라 길흉(吉凶)도 달라지는데 낙서(洛書)에는 아홉 개의 궁수(宮數)가 있으므로 3원 9운(三元九運) 즉 1운에서 9운까지 합계 18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고 보는, 기존의 공간개념(空間概念)에다 동태적 시간개념(時間概念)을 가미한 새로운 풍수지리학설(風水地理學說)이다. '고정(固定)된 기(氣)'와 '유행(流行)하는 기(氣)'가 공간(空間)과 방위(方位)와 시간(時間)에 따라 대립(對立)과 통일(統一)이 반복되는 동안 기운(氣運)이 변화되는 이치를 연구하는 현공학(玄空學)은 「활역경(活易經)」이라고도 부른다.

리계 놓은 곽박 선생의 충정을 깨닫고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이순풍은 분금을 바로 잡아 장사를 치렀다. 그러고 나니, 증손자인 곽자의(郭子儀)는 얼마 후 당 현종에 의해 일약 재상으로 발탁되어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선정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안록산의 난과 서강의 난을 평정하는 등 출장입상(出將入相)으로 일등 재상이 되었다.

이처럼 신기하게 발복이 적중하는 현공풍수는 그 후 당의 양균송(834-900), 증공안, 증문천, 진희이 다시 송의 오극성, 오경란에게 전해졌다고 하나 핵심비결은 적전제자(嫡傳弟子)에게만 은밀히 구전심수(口傳心受)되어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못하고 황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수백년의 세월이 흐른 후 청말에 항주 살았던 심소훈(沈紹勳 1849-1906) 선생이 선고의 장지를 찾다가 중태산(中台山) 남쪽에 임좌병향(壬坐丙向)의 참으로 아름다운 대지를 발견하고 양자강 남북 80여 명의 지사들을 불러 모아 그 자리를 보이니 모두가 찬탄하였다. 그러는 사이 모 관리가 큰 돈에 웃돈을 얹어주고 먼저 구입해 버렸다.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다.

얼마 후 그 자리를 구입한 관리가 부모를 장사지낸다 하기에 구경을 가 혈토를 보니 태극문양이 선명한 옥황색의 미지(美地)였다.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장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산소를 쓴 관리가 죄를 짓고 귀양 가던 도중에 죽고 집안도 날로 영락하였다. 이것을 본 심소훈(沈紹勳)은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주(杭州)의 모든 지사들을 불러 백방으로 물어 봐도, 좋은 터에 흉살 없는 날에 장사를 지냈는데 가문이 영락(零落)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그 후 자형 호백안(胡伯安)이 여행 도중에 자기 집에 들렀는데 마침 그의 짐 속에 있던 「강요비본(姜彥秘本)」이란 풍수서를 펴보니 "일운(一運)에 임좌병향(壬坐丙向)을 놓으면 반운(反吟), 복운(伏吟)이 되어 장사 지내자마자 화가 곧 닥친다."라는 구절을 읽고 의구심이 풀렸던 것이다.

이처럼 비록 좋은 땅이라도 시기가 아니면 발복(發福)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미친다고 하니 풍수의 이치란 참으로 오묘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심소훈(沈紹勳) 선생은 현공풍수를 배우기 위해 26세 때 호백안과 함께 우시(無錫)의 장중산(章仲山) 후예를 찾아가 수개월을 사정해도 한 자(一字)의 비밀도 누설하지 않기에(至寶不輕示人) 거금(重金)을 주고 「음양이택록험(陰陽二宅錄驗)」이란 책을 하루 동안 빌려 꼬박 밤을 새우면서 필사해 현공풍수(玄空風水)의 이치를 30여 년간 연

구, 마침내 「지리변정결요(地理辨正訣要)」와 「심씨현공학(沈氏玄空學)」(아들이 1925년에 발간)을 통하여 세상에 밝혔다. 선생께서는 근대 현공학의 대종사(大宗師)로서 세상 사람들의 추길피흉(趨吉避凶)을 위하여 현공풍수의 연구에 이처럼 58세라는 길지 않았던 생애를 전부 바쳤던 것이다.

현공풍수(玄空風水)란 1운(一運)을 20년으로, 매3운(每三運)을 1원(一元)으로, 입춘일(立春日)을 기점으로 20년간의 주기(週期)로 지운(地運)이 바뀌며 방위(方位)에 따라 길흉(吉凶)도 달라지는데 낙서(洛書)에는 아홉 개의 궁수(宮數)가 있으므로 3원 9운(三元九運) 즉 1운에서 9운까지 합계 18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고 보는, 기존의 공간개념(空間概念)에다 동태적 시간개념(時間概念)을 가미한 새로운 풍수지리학설(風水地理學說)이다.

현공학(玄空學)의 이론적 체계는 선천팔괘(先天八卦)를 체(體: 空間)로 삼고 후천팔괘(後天八卦)를 용(用: 時間)으로 삼아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에 근원을 두었다. 만물(萬物)은 부단히 변동(變動)하는 가운데 살아서 숨쉬는 것이므로 이것을 「생생식식(生生息息)」이라 하며 생명(生命)의 근본이 된다.


‘고정(固定)된 기(氣)’와 ‘유행(流行)하는 기(氣)’가 공간(空間)과 방위(方位)와 시간(時間)에 따라 대립(對立)과 통일(統一)이 반복되는 동안 기운(氣運)이 변화되는 이치를 연구하는 현공학(玄空學)은 「주역」의 이론을 한결음 더 발전시켜 활용하는 고차원적 학문이기 때문에 「활역경(活易經)」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은 현공풍수는 20년마다 바뀌는 시운(時運)에 따라 왕기(旺氣)의 좌향(坐向)으로 주택이나 공장, 사무실, 묘지를 만들면 천지(天地)의 기장(氣場)이 잘 맞아 당사자나 후손들이 오랜 세월 부귀(富貴)를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패절한다는, 2000년간 비전되어온 발복이 확실한 풍수 이론이다.

따라서 현공학은 건축사나 풍수사,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필수교양으로 함께 공부해 들어야 할 실용적 학문이다. 현명한 독자라면 현공풍수의 활용법을 터득하여 자신과 이웃의 추길피흉을 기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꾀하게 될 것이다.

元	九運	六十甲子	西曆期間	九星	六親	旺氣方	生(進)氣方	吉	衰	死	零
上元	一運	甲子-癸未	1864-1883	貪狼	中男	北方-坎氣	西南-坤氣	六八	三	五七	九
	二運	甲申-癸卯	1884-1903	巨門	老母	西方-坤氣	東方-震氣	六	一四九	五七	八(弱)
	三運	甲辰-癸亥	1904-1923	祿存	長男	東方-震氣	東南-巽氣	六	一二五	九	七
中元	四運	甲子-癸未	1924-1943	文曲	長女	東南-巽氣	西北-乾氣	一八	二三	七九	六
	五運	甲申-癸卯	1944-1963	廉貞		前十年-巽氣 後十年-乾氣	西南-坤氣 東北-艮氣	一八	三四七	二九	
	六運	甲辰-癸亥	1964-1983	武曲	老父	西北-乾氣	西方-兌氣	一八	五九	二三	四
下元	七運	甲子-癸未	1984-2003	破軍	少女	西方-兌氣	東北-艮氣	一	五六九	二四	三
	八運	甲申-癸卯	2004-2023	左輔	少男	東北-艮氣	南方-離氣	一	六七	三四五	二(弱)
	九運	甲辰-癸亥	2024-2043	右弼	中女	南方-離氣	北方-坎氣	六八	二	三四五七	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지구의 간방(艮方)에 위치한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낭림산맥(狼林山脈)에서 십자맥(十字脈)을 놓고 백두대간(白頭大幹)이 건해룡(乾亥龍)으로 뻗어 내려 6운에 승왕(乘旺)하고 태백산(太白山)까지 내려가면서 소간룡(少幹龍)들은 간인룡(艮寅龍)으로 뻗어 내려 8운에 승왕(乘旺)하게 된다. 반면, 1, 2, 3운에는 쇠퇴(衰退)를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주도의 경제 성장기는 6운 기간 중(1964-1983)이었으며 연세 드신 분(老父)들이 주축이 되었으나 현재 8운 기간(2004-2023)에는 정치개혁을 젊은 층(少男)이 주도하게 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추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혼란과 경제 불황을 겪게 될 것이나 잘만 하면 8운 기간 중에 남북한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 연세 드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통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SEMINAR

제 167 차 월 레 세 미 나

U.S.-Korea Relations : Present and Future



Thomas C. Hubbard | 주한 미국대사



편집자주 : 지난 3월 18일(목)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본원 「제167차 월레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Thank you, President Choi, for the generous introduction,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with the University Industry Research Institute. I am honored to be able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group.

First, I would like to start off by looking at the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the US-ROK relationship and what brings us together as nations. I think it's particularly important to look at the factors that drew us together as allies some 50 years ago and at the shared values and interests that continue to pull our two nations together despite dramatic changes in the global arena.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egan a little over 50 years ago, when our two countries, along with other UN contributors, fought side by side in the Korean War. One could say that the Korean War was the "push" that brough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wo very different nations facing very different circumstances — to become allies. In the years since then, our two countries have built an alliance that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 the history of U.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our shared values continue to be the pull that unites us.

US-Korean defense cooperation has ensured peace and stabil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region. The strength of our partnership has successfully deterred North Korea and has guaranteed the stability necessary for Korea to build a thriving economy and a vigorous democrac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worked together to make this possible and the alliance has symbolized our two countries' shared dedication to peace, freedom and democracy.

The strength of our defense cooperation has provided the security environment to enable South Korea to write one of the world's most amazing stories of economic success. The Korean people rose from the rubble of a devastating war to become the world's 12th largest economy and all in just a few decades. Korea's economic rise was not a matter of chance or luck: it took the sustained determination, hard work, and sacrifices of the entire Korean people to effect this transformation. Importantly, it took a strong U.S.-Korea defense alliance to protect the peace and provide the stability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ut Korea's success story did not end with its becoming an economic powerhouse. Perhaps more

SEMINAR

significantly, the Korean people have transformed their country into a thriving democracy. In less than two decades, the Korean people have witnessed the transfer of power from a military to a civilian administration, from one political party to another, and, most recently,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Korea has made the transition to true democracy with breathtaking speed and impressive results. You have established free elections, free press, and adherence to the rule of law, in the process transforming Korea into one of the world's most open, vibrant and promising countries. You have earned the respect and admiration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More importantly, Korea has become an example to the rest of the world. In fact, last year,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to which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elong, is more than just expression. It is manifestation of our shared set of beliefs about what it means for human beings to live in freedom. We are also bound together by a shared obligation to ensure that we are not the only ones who live in freedom, that we do not selfishly hoard the benefits of liberal democracy for ourselves only.

The nature of our shared values creates shared obligations and ensures shared benefits. As liberal democracie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party to this obligation. We cannot and should not turn away from those people around the world who seek our assistance.

We are proud that Korea — whose own history represents a victory of democracy over aggression and tyranny is part of the coalition giving the Iraqi people the chance to build a democratic and free Iraq. We appreciate the courageous decision by the ROK government to contribute an additional 3,000 Korean troops to the coalition effort to rebuild Iraq. This will make Korea the third largest contributor of forces — after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 to the international effort in Iraq. The determination to assist in Iraq is a strong indication of your nation's desire for a more free and peaceful world and is strong expression of our two countries' partnership to meet today's security challenges.

This leads me to the key point I want to make today: The tragedy and desperation of war may have been the "push" that drew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gether, but, more and more, it is our shared hopes and values as democratic nations and our economic partnership that are the compelling "pull" that makes the



U.S.-Korea alliance meaningful as we face th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21st century.

In this age of increasing globalization,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vacuum.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and Korea is poised to play a central and dynamic role in the continuing growth of this reg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is a central issue of discussion as countries increasingly look to multilateral solutions to security issues. Inevitably, managing North Korea is at the center of such considerations, inasmuch as Pyongyang's behavior poses the most urgent security problem for all nations in this region.

Our alliance has succeeded in deterring North Korean aggression for the past 50 years, but we still have not found a solution to the new challenge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United States and Korea's neighbors are in agreement on two fundamental points: 1) there must be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2) this is a problem that should be solved peacefully, through multilateral diplomacy.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gether with China, Russia, and Japan are engaging North Korea in a Six Party dialogue to fi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last round of which was held in Beijing just a few weeks ago. The success of these talks — whether we are able to persuade Pyongyang to agree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ocably — will continue to depend fundamentally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I know that finding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of deep interest and concern to each of you, because long-term prospects for reg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ll be heavily affected by this problem.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s in everyone's interest, including the North Koreans, and especially to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facilitating the process of peaceful unification.

One of the striking trends of the past 20 years has been the growing integration among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Trade levels within Northeast Asia and between Northeast Asia and the U.S. have skyrocketed. It would be difficult to overstate the economic, cultural and security benefits that

SEMINAR

have accrued to the countries involved in this integration.

There is, however, one, and only one, exception to this trend: North Korea. And North Korea, and its people, and the people of the region, have paid a terrible price for the DPRK's continuing, self-imposed isolation. Pyongyang's failed economy has turned it into an international charity case, dependent upon the benefic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eed its children.

With hard work and skillful diplomacy, I believe that the process of the Six Party Talks could lead to a more effective structure for promoting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improved ways of creating a more stable and positive climate for development in the region.

Common security concerns brought us together 50 years ago and draw us together today, but our alliance has become much broader and deeper than our military partnership.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one of the largest economic relationships in the world.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nefit when both our economies are strong. We have a common appreciation of the benefits of free trade. Koreans, much like other members of the global trading community, understand why open markets and the free flow of goods and services are essential.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key trading partners for each other.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trade volume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nearing \$60 billion per year. South Korea is now the U.S.' 7th largest export market, while fo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are its largest markets. The U.S. also remains the largest foreign investor in Korea.

The ROK government has voiced its intent to continue economic reform, and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ntinued corporate reform,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 program of continued reform goes hand in hand with the evolving concept of Korea as the economic hub of Northeast Asia. We applaud this concept because creating a business hub in Korea would bring policy changes that would both liberalize and open up Korea's economy and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Korean and U.S. companies.



We believe that for Korea to succeed as a regional hub, it needs to offer a predictable and stable business environment with a transparent regulatory process, more open markets,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reduced government interference in the market, and bett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 also needs to allow firms more flexibility in the hiring and firing of workers, and needs to seek more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management and workers generally. These are problems that cut across economic sectors and discourage potential investors, both foreign and domestic.

In addition to moving forward with the business hub idea, there are other steps Korea could take to establish its place as a global economic leader. A bold step would be for Korea to announce and implement a forward-looking trade liberalization policy, beginning in the WTO. Korea is a major trading nation, and if the Korean Government took a leadership role in moving the Doha Development round forward, businesses would definitely take notice.

By the same token, intensifying Korea's efforts to negotiate bilateral FTAs, particularly in Northeast Asia, would give businesses confidence that Korea will keep its economy heading in the direction of greater opening. We believe that strong economic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its neighbors,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free market economies, would be to the benefit of all those active in the global economy.

In the big picture, each partner in Northeast Asia has a central role to play in achieving broader regional integration. I am convinced that if South Korea can keep its markets open and flexible, continue on the path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mprove governance practices and enhanc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n it will in fact be able to play the central role that it seeks in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o a growing base of shared values, a strong military alliance, and thriving trade and commercial ties, our bilateral relations also have an important personal dimension. There are now nearly two million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last year we celebrated the 100th year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Whether they are fourth generation or recent immigrants, Koreans are known as hard workers, diligent students, and strong believers in the American Dream. The presence of more than 50,000 Korean students in the US—the third largest foreign presence in American universities—belies the image often portrayed in the

SEMINAR

press that Koreans dislike America.

In looking back, one cannot help but be impressed by the fruits borne by the U.S.-Korea allianc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s emergence as an economic powerhouse and democracy. These factors will be as important in the future as in the past. Indeed, if we can maintain mutual respect and goodwill, what our two countries have accomplished together thus far gives us great hope for what we can accomplish together in the future as allies, economic partners and as friends.

You will notice that I haven't said anything about impeachment. That is because the action taken by your National Assembly is a domestic political matter. When U.S. Secretary for Homeland Security Tom Ridge met with senior Korean officials last Saturday, he was assured that thi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would not affect Korea's external relations. Secretary Ridge, in turn, assured the Korean leaders that the United States respects Korea's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ntinue its close cooperation with the Acting President and Korea's cabinet on the range of issues of common concern. We are confident that Korean democracy will stand up to the challenges it now faces and continue to form a basis for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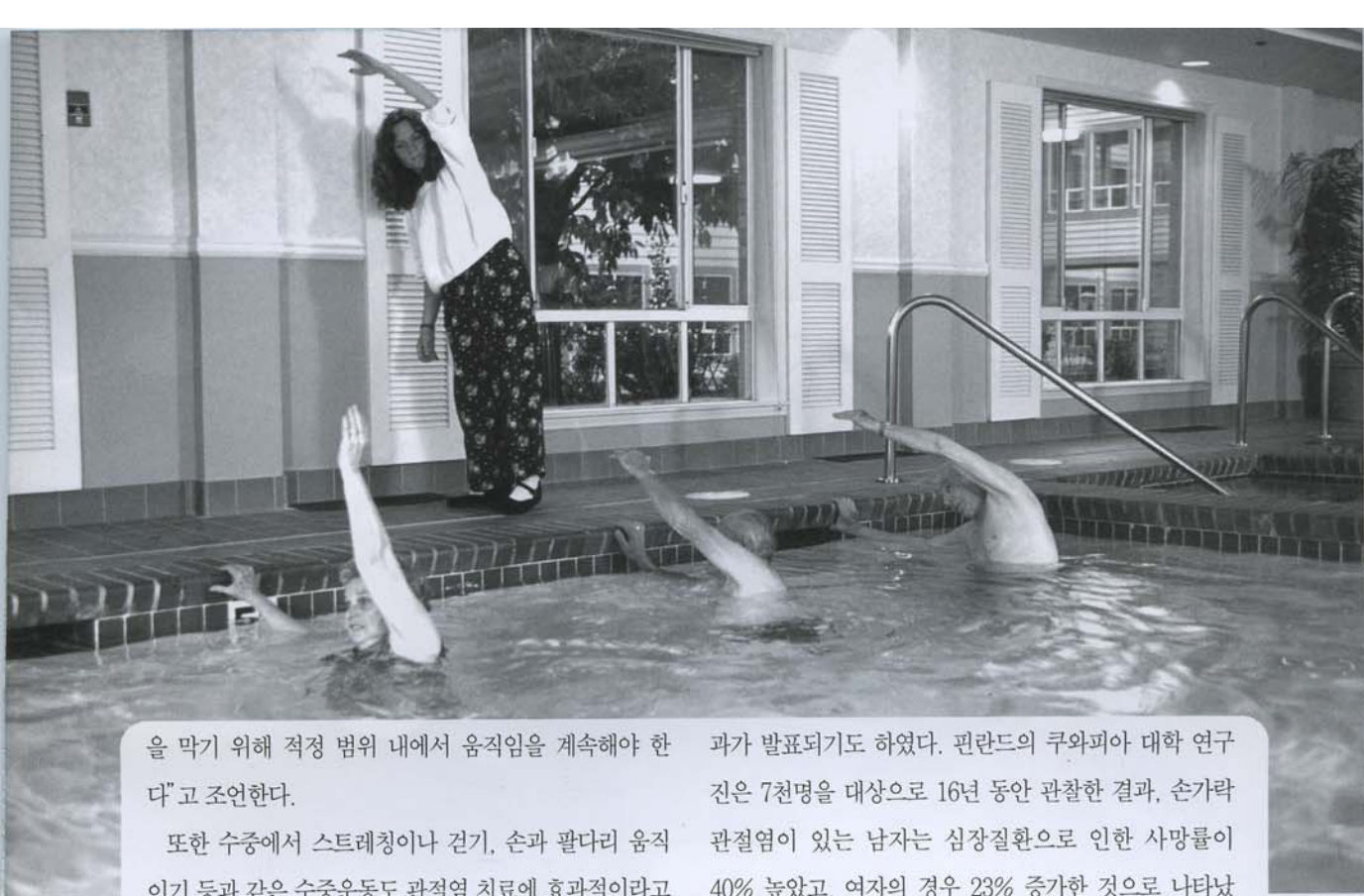
Thank you. 

관절염 치료 -생활 속에서 찾는다

200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관절염 증세를 갖고 있으며, 국민 전체의 6.4%는 관절염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5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는 관절염은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다.

'관절에 생긴 염증'을 의미하는 관절염은 노화, 비만, 외상, 감염,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겨난 '퇴행성 관절염'과 자신의 관절에 면역반응을 일으켜(이를 '자가면역반응'이라고 한다) 발생한 '류머티스 관절염'이 가장 많다. 그동안 관절염 환자들은 움직이는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운동은 고사하고 자신이 즐기던 취미활동도 포기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법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쌓여가고 있다. 관절염 환자들도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육체적 활동을 지속하라는 것이다.

미국 캔자스 대학의 연구진은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4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20분씩 일주일에 네 번, 4주 동안 피아노를 치도록 했다. 그 결과 3명은 손가락 움직임의 속도, 강도, 민첩성이 개선되었고 2명은 연주 후에 손가락 통증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한 의료센터의 전문가는 "손가락 관절염을 앓는 거장 피아니스트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피아노를 계속 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의 경직



을 막기 위해 적정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수중에서 스트레칭이나 걷기, 손과 팔다리 움직이기 등과 같은 수중운동도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물 속에서는 관절에 전해지는 체중이 물의 부력으로 인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수중운동은 관절염 환자나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의 재활을 위해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어 지금은 많은 재활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수중운동이 좋은 것은 아니다. 염증이 심한 환자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중운동이 해로우니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관절염 환자들이 고통스럽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와 같이 활동성 있는 취미활동이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당한 운동을 통해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관절염에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취미 활동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특히 화단 가꾸기와 같은 야외 활동은 관절염 통증 완화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관절염은 심장질환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

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핀란드의 쿠와피아 대학 연구진은 7천명을 대상으로 16년 동안 관찰한 결과, 손가락 관절염이 있는 남자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0% 높았고, 여자의 경우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인 고지혈증이 연골의 손상을 가속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고지혈증과 비만, 그리고 관절염을 공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처방을 제안했다.

프랑스의 화가인 르느와르는 말년에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손가락에 붓을 대단 채 <꽃 달린 모자를 쓴 소녀>라는 명작을 남겼다. 노력하는 자에게 관절염은 불편함을 줄 따름이지,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셈이다.

“서울에 사시는 **李** 할머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는 환갑을 훨씬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백조를 꿈꾸며 오늘도 발레연습에 구슬땀을 흘리신다. 머느리의 권유로 발레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 **李** 할머니는 발레를 하면서 관절염 통증이 줄어든 것은 물론 체형도 바로잡고 자신감도 회복하여 황혼의 청춘을 보내고 계신다.” 

<자료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바다 속 노다지를 캔다 - 하이드레이트(Hyd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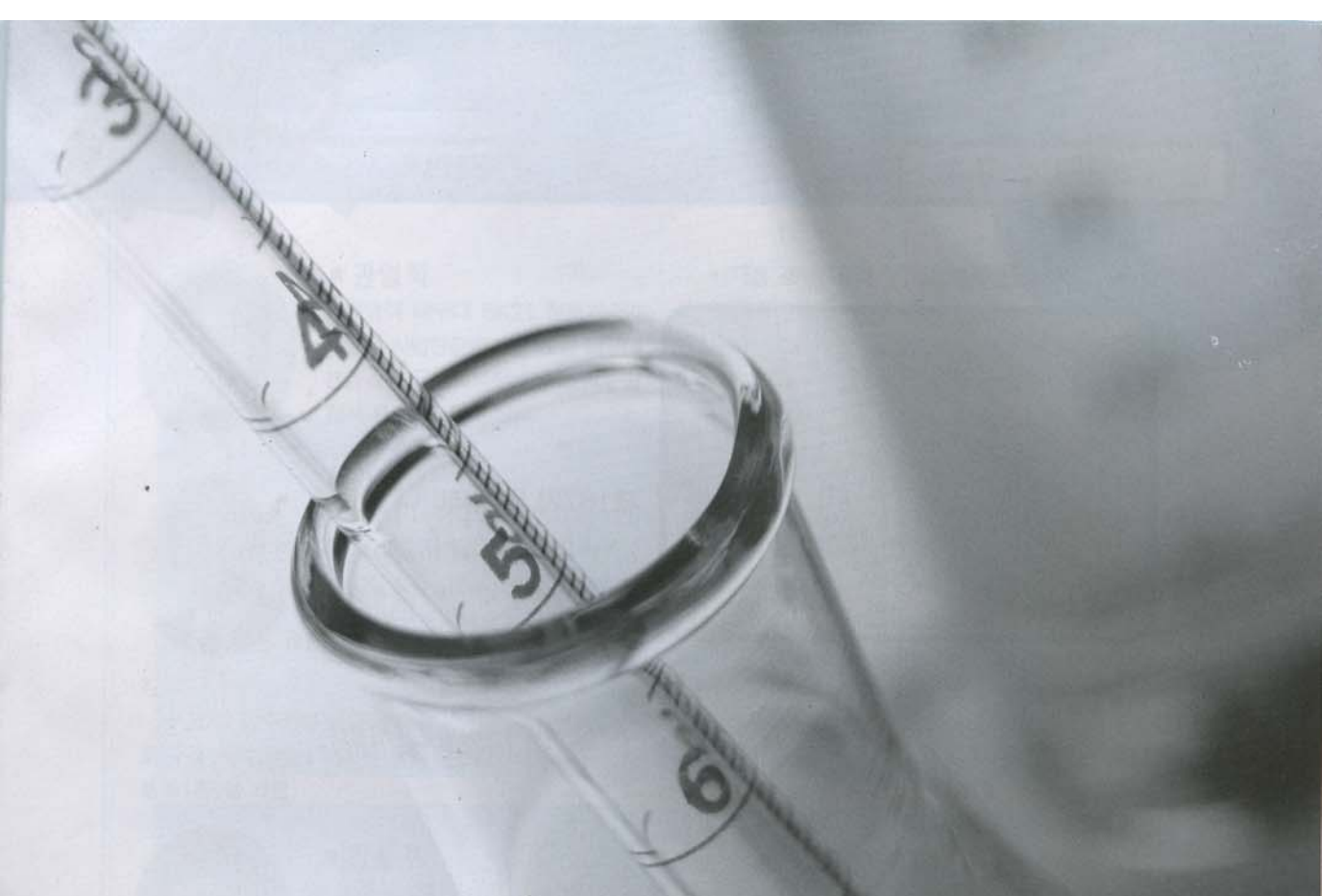
성서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가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쯤 되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술사들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얼음 덩어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는데, 불꽃은 타오르지만 손은 데이지 않고 얼음 녹은 물만 흘러내린다. 이 얼음불꽃(빙화·氷火)은 마술의 세계에서나 존재할 법 하지만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만약 온도를 영하로 내리고 압력을 수십 기압까지 높이면 물은 얼게 되고 기체는 물 입자가 만든 격자형의 우리 속에 갇히게 된다.

이것을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기체수화물)라고 하는데, 그 속에 갇힌 가스가 메탄(Methane, CH₄)일 경우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른다. 보통 천연 가스는 지하의 높은 온도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와 같은 동토지역의 깊은 땅 속

이나 수심 300~1,000미터의 바다 밑에서와 같이 3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과 함께 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면 천연가스가 물과 같이 결합하여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겉 모습은 드라이아이스(Dry ice, CO₂)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1리터의 얼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가스를 담을 수 있을까? 기체 입자는 분자 운동에너지가 크므로 매우 커다란 부피를 차지 할 수 있다. 이것이 고체로 변하게 될 때는 165~215배 정도로 압축된다. 즉, 1리터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속에 약 200리터의 가스가 담겨져 있다는 말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21세기의 신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막대한 매장량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천연 가스 매장량의 약 100배인 10조 톤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량의 200~500년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두 번째 이유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깨끗함’이다. 메탄을 주성




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는 대위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석탄, 석유의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라 불리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메탄이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 밖에 생기지 않고 또 이산화탄소의 발생비율도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낮지만, 시추과정에서 메탄이 연소되지 않고 공중에 그대로 방출되면 이산화탄소보다 10배나 더 심각한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포함된 메탄가스의 양은 대기권에 존재하는 양의 300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메탄 가스가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면 지구의 기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추과정에서 어떻게 메탄의 방출을 막을 것인가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

명화학공학과 이훈교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에서 메탄을 빼낸 후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표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방법이 실용화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환경 보호라는 두가지 난제를 풀 수 있어 본격적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1세기 에너지원으로 가장 확실시 되는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오호츠크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도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래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밝은 빛을 주고 있다.

미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드레이트! 

〈자료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제167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3월 18일(목)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대구발전동우회와 공동주최로 「한미관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분원 제

167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42차 이토회 개최

지난 4월 10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42차 이토회를 가졌다.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문계완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생년월일 : 1960. 8. 24
- 주소 : 대구시 북구 산격3동 1370
- TEL : 053)950-5448



■ 변재웅

- 계명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
- 생년월일 : 1960. 10. 6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 TEL : 053)580-5384



■ 이무근

- 경일대학교 총장
- 생년월일 : 1940. 10. 13
- 주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
- TEL : 053)850-7710



회원동정



■ 권영직

권영직 대구대 BK21 정보기술인력양성 사업단장은 4월 19일 대구대 본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대구대-영천시 관·학교류회 개최



■ 김규택

김규택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4월 9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4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석, 수성구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들안길 맛 축제행사 등 홍보활동을 펼

침

•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 협의회 주관으로 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통일 홍보강연회에서 참석자들과 대담을 가짐



■ 김동구

김동구 (주)금복주 대표이사는 4월 6일 대구·경북지역 소재 169개 고등학교에 1/4분기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달



■ 김석삼

김석삼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3월 24일 공과대학장으로 선임



■ 김석진

김석진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월 2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샵에서 "국교협의 운동방향" 주제 발표

• 2월 27일 한국산업경영학회 2004년 동계 학술대회에서 "기업의

은행관계가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논문 발표

- 『한국증권시장론』, 삼영사, 전정판, 2004.3. 728면
- 2004년 1월 ~ 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
- 2004년 1월 ~ 한국선물포럼 부회장
- 2004년 1월 ~ 한국재무학회 감사
- 2004년 3월 ~ 2007년 2월까지 대구시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 대은 경제리뷰에 "지방은행의 존립근거와 역할"이라는 논문 게재

• 『한국의 은행 100년사』, 도서 산하발간, 2004.3. 782면



■ 김수원

김수원 대한토목학회 대구경북지회장은 4월 30일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대한토목학회 대구경북지회 2004년도 정기총회와 춘계토목학술논문 발표회를 개최



■ 김원경

김원경 경동정보대학장은 4월 28일 이상의 경북소방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환경조합관리센터와 소방방재훈련센터

개소식을 가짐



■ 김종석

김종석 평화산업(주) 부회장은 회장으로 취임



■ 배수진

배수진 계명문화대학 경영과 교수는 노사협력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5월 1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2004년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1978년부터 계명문화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영지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활발한 취업 지원 활동,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에 기여한 공로 등 많은 업적을 쌓음



■ 신호균

신호균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노보텔 호텔에서 개최한 제16차 아태 YMCA 대회의 한국대표로 지난 3월 9일 출국, 14일 귀국



회원동정

• 4월 2일과 6일, 새로넷방송(주)이 주관하는 제17대 국회의원 구미시 갑 및 을 선거구 후보자초청 토론회 진행

•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루지애나주 뉴올리안스에서 개최한 2004년 미국통합경영학회(Allied Academies Int'l Conference) 춘계학술대회에서 300여 편의 발표 논문 중 "Associations Between E-Business Models and Their Business Performances"라는 발표논문으로 우수논문상 수상자(Distinguished Research Award Winner)로 선정



■ 이인우

이인우 Press 25 대구·경북본부장은 6월 5일 실시하는 대구시 북구 청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예비후보 등록



■ 이재녕

이재녕 새시대를 여는 화염포럼위원회장(대구 남구문화원장)은 최근 대덕문화전당에서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염포럼 창립식을 개최



■ 이훈

이훈(주)e-SIS 대표이사는 4월 1일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본사 확장 이전

• 주소 : 대구시 동구 신천3동 95 대구벤처센터 14층

• 전화 : 053)759-5700 • 팩스 : 053)759-5777



■ 정태일

정태일 한국OSG(주) 대표이사는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돼 4월 27일 이용섭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서를 받음



■ 조봉진

조봉진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열리는 제18차 세계창업보육협회 연차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1일

출국, 5월 2일 귀국



■ 조재룡

조재룡(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3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최고경영자연수 과정 이수

• 30일 대구시지정 2004년도 산업현장 기술지원 핫라인센터 경영자

문위원 위촉

• 31일 영남이공대학 창업보육센터 경영컨설팅사로 선정



■ 최창득

최창득 대구경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최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월 1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으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수상



■ 홍철

홍철 인천대학교 총장은 5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장에 선임(오는 9월 인천대 총장 임기 만료, 6월부터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상근할 예정)



■ 황대현

황대현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3월 10일 달서출무관에서 제7기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입학식을 갖고 축사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짐

• 15일 달서발전협의회에 참석,

각급 기관단체장들에게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다같이 힘써줄 것을 당부

• 3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화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 수상

• 4월 22일(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시지부 주관으로 대구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구시각장애인 재활축제에 참석 장애인 및 관계자 격려

• 5월 1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한국 어린이 육영



회원동정

회 대구시 지회에서 주관하는 회원교육 및 대구 수목원에서 열리는 한국 어린이 육영동산 조성식에서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김극년

김극년 본원 고문(대구은행장)은 4월 20일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지역은행과 지역기업」을 주제로 특강

• 23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 협의회에 참석, 지방금융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



■ 노희찬

노희찬 본원 고문(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4월 22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막되는 「제36회 한·일 경제인 회의」에 참석



■ 이상천

이상천 본원 고문(영남대학교 총장)은 4월 26일 동아대, 원광대, 조선대 등 영·호남 지역대학과 함께 북한 용천역 대폭발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해 모두 2

천만원을 성금으로 기탁



■ 최용호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4월 11일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위원회의 9차 이사회에 참석

• 12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분야 혁신관리자 연찬회에서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특강

• 26일 대구경북지역 혁신연구회 부회장이어서 제 3차 워크샵(주제 :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구축방안) 사회

• 30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지방 및 균형발전분과 위원장으로 호선됨)



■ 구정모

구정모 본원 부이사장((주)대구백화점 대표이사)은 4월 7일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에서 경상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이란 주제로 특강



■ 권업

권업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4월 6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겸 법인이사 취임

축하드립니다

• 오 명 수 회원 장남 결혼 : 2004년 5월 1일(토) 오후 3시 프린스호텔 별관 2층

• 박 성 수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 원장 장녀 결혼 : 2004년 5월 9일(일) 오후 1시 30분 광주 상록회관 본관 3층 무궁화홀



【 신착도서목록 】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형 시장구조와 M&A 심사", 2004. 4. 26
- 대구상공회의소, "2004. 2/4 大邱地域 企業景氣展望", 2004. 3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우리의 꿈 DYETEC VALLEY", 2004. 3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3. 31
- 삼성경제연구소, "半導體 強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中國", 2004. 4. 14
- 중소기업청, "人力支援關聯法令集", 2004. 2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회사집단 감독체계의 구축방향", 2004. 3
-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상황 보고서(2003년도)", 2004. 3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4. 2. 27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04. 3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전자금융총람", 2004. 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2004. 3

정기간행물

-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 2004. 1
-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 2004. 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4. 4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 경북경제동향", 2004. 3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의", 2004. 3 · 4
- 대구은행, "대은경제리뷰", 2004. 1 · 2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포럼", 2004. 3/4
- 산학연중합센터, "산학정21", 2004. 4. 5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3", 2004. 3
- 약령시보존위원회, "약령춘추", 2004. 봄호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4. 4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Focus", 2004. 3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4. 4
-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4. 4
- 증권거래소, "주식", 2004. 4
-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과 미래", 2004. 3/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과 경영", 2004. 4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정보", 2004. 봄호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4. 4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 인포", 2004. 4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4. 4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4. 4
- 한국여성인력개발원, "여성논집", 2004. 3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 · 경북지역 경제동향", 2004. 2
- (주)푸드웰, "가실", 2004. 3 · 4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 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및 출연금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시 손금납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 502-82-12124).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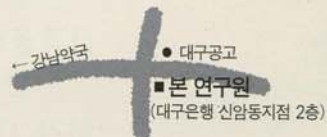
매월 2,500여 부를 제작 · 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4년 4월호 (통권 156호)

- 간 별 : 월간
- 등록번호 : 대구리01089
- 등록일 : 1998년 6월 2일
- 발행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행일 : 2004년 4월 30일
- 발행인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학교 교수)
한성덕 (대구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부장)
김영재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학 교수)
박규진 ((주)에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항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학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멀티애드(053-751-6562)




 社 團 産 學 經 營 技 術 研 究 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053)959-2861~2 FAX.(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uri@uri.or.kr

1년 365일

오직 지역만 생각합니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해 온 대구은행은
한결같은 마음과 변함없는 정성으로
항상 지역만 생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